

중국고전들에 기록된 고구려왕세계에 대한 검토

김 경 위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아직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김정일전집》 제8권 232페이지)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거쳐 인류문명을 개척하는 데서 선각자적역할을 하여왔으며 그 과정에 찬란한 문화와 전통을 창조하여왔다.

그러나 자랑찬 우리 민족사의 갈피갈피에 새겨진 력사적사건사실들이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밝혀지지 못하고 력사학분야에서 많은 미해명문제로 남게 되였다.

이러한 미해명문제들가운데는 사료의 결핍이나 고고학적발굴의 부족으로 하여 밝혀지지 못한것도 있고 또 사료의 외곡으로 하여 해명되지 못한것도 있다.

사료는 력사연구에서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증된 사료만이 력사적사건사실들을 옳게 해명하는데 리용될수 있다. 정확한 사료에 기초한 연구는 력사의 진면모를 밝혀내지만 반대로 그릇된 사료에 기초한 연구는 외곡된 력사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미해명문제를 밝히는데서 그와 관련한 사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진위를 가려내는것은 력사연구의 첫 공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가 력사연구에서 흔히 리용하고있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롯한 민족고전들과 《한서》, 《후한서》, 《삼국지》를 비롯한 중국고전들에는 고구려관계사료들이 적지 않게 외곡되어있다. 그것은 고구려왕세계에 관한 기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아직 고구려왕세계에 관한 력사기록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매 사료들의 진위에 대해 명백한 견해를 제기한 연구결과는 없다고 본다.

고구려왕세계에 대한 각이한 사료들은 현재 고구려력사연구에서 여러가지 론점들을 산생시키고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의 일부 학자들속에서는 고구려왕세계에 대한 외곡되고 그릇된 견해들이 계속 제기되고있다.

론문에서는 고구려왕세계를 기록한 중국고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서로 차이나는 사료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고구려왕세계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히려고 한다.

2. 본 론

2.1. 1-4대왕세계의 각이한 기록에 대한 분석

우리 학계에서는 이미 1-4대왕세계에 대하여 동명왕-유류왕-여류왕-대주류왕으로 고증해놓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4대왕세계의 고증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각이한 문헌사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 학계의 견해가 과학적이라는것을 밝히려고 한다.

고구려건국초기의 1-4대왕세계에 대하여 기록한 중국고전들에는 《위서》, 《북사》, 《마씨문헌통고》, 《책부원귀》 등이 있다. 그런데 문헌들에 두갈래의 서로 다른 기록이 실려있는것으로 하여 초기왕세계에 대한 리해에서 혼란이 조성되고있다.

우리 학계에서는 1-4대왕세계를 고증하면서 《위서》의 기록을 취하였지만 《북사》, 《마씨문헌통고》, 《책부원귀》의 기록을 배제할수 있는 근거를 제기한 연구결과는 아직 언급된것이 없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하여 《위서》의 기록이 옳고 《북사》, 《마씨문헌통고》, 《책부원귀》의 기록은 잘못되었다고 볼수 있겠는가.

먼저 그 기록들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위서》의 기록 : 《…주몽이 죽자 려달이 대신 왕이 되었고 려달이 죽자 아들 여물이 대신 왕이 되었으며 여물이 죽자 아들 막래가 대신 왕이 되었다. 이어 부여를 쳤는데 부여가 크게 패하여 드디어 통합되었다.(…朱蒙死 閔達代立. 閔達死 子如栗代立 如栗死 子莫來代立 乃征夫餘 夫餘大敗 遂統屬焉.)》*

* 《위서》 권100 렬전88 고구려

《북사》의 기록 :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처가 임신을 하였는데 주몽이 달아난 후에 아들을 낳고 시려해라고 하였다. 커서 주몽이 국왕이 되었다는것을 알고는 어머니와 함께 망명하여 그를 찾아왔다. 이름을 려달이라고 하고 국사를 맡기었다. 주몽이 죽자 아들 여물이 왕이 되고 여물이 죽자 아들 막래가 왕이 되었으며 곧 부여를 병합하였다. 한무제 원봉 4년에 조선을 멸망시켰으며 현도군을 두고 고구려를 현으로 삼아 소속시켰다.(其在夫餘 妻懷孕 朱蒙逃後 生子始閔諧. 及長知朱蒙爲國王 卽與母亡歸之 名曰閔達 委之國事. 朱蒙死 子如栗立 如栗死 子莫來立 乃并夫餘. 漢武帝元封四年 滅朝鮮 置玄菟郡以高句麗爲縣 以屬之.)》*

* 《북사》 권94 렬전82 고려

《마씨문헌통고》의 기록 : 《국호를 고구려라고 하고 고씨로써 성을 삼았다. 부여에 있을 때 처가 임신을 하였는데 주몽이 달아난 후에 아들을 낳고 시려해라고 하였다. 커서 주몽이 국왕이 되었다는것을 알고는 어머니와 함께 망명하여 그를 찾아왔다. 이름을 려달이라고 하고 국사를 맡기었다. 주몽이 죽자 아들 여물이 왕이 되고 여물이 죽자 아들 막래가 왕이 되었으며 곧 부여를 병합하였다. …한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현으로 삼아 현도군에 소속시켰다.(號曰 高句麗 因以高爲氏. 其在夫余 妻懷孕 朱蒙逃後 生子始閔諧. 及長知朱蒙爲國王 卽與母亡歸之 名曰閔達 委之國事. 朱蒙死 子如栗立 如栗死 子莫來立 乃并夫餘. …漢武帝滅朝鮮 以高句麗爲縣 使屬元菟.)》*

* 《마씨문헌통고》 권4 예고2 고구려

《책부원귀》의 기록 : 《한나라초에 그 왕 고주몽이 죽었다. 아들 여물이 왕이 되었고 여물이 죽자 아들 막래가 왕이 되었다. 한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현으로 삼았다.(漢初 其王高朱蒙死 子如栗立 如栗死 子莫來立. 漢武帝既滅朝鮮 以高句麗爲縣.)》*

* 《책부원귀》 권966 외신부 계습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구려의 초기왕세계와 관련된 기록에는 두가지의 갈래가 있다. 즉 주몽(1대 동명왕)－려달(2대 유류왕)－여물(3대 여물왕)－막래(4대 대주류왕)

로 본 《위서》의 기록과 주몽(1대 동명왕)－여류(3대 여류왕)－막래(4대 대주류왕)로 본 《북사》, 《마씨문헌통고》, 《책부원귀》의 기록이다. 한편 우에서 본 《북사》와 《마씨문헌통고》에서는 부여에서 주몽을 찾아온 아들려달이 국사를 말아보았다고 기록하면서도 왕세계에서는 주몽(1대 동명왕)－여류(3대 여류왕)－막래(4대 대주류왕)로 설정해놓았다.

《위서》의 기록이 옳다고 볼수 있는 근거는 첫째로, 《위서》 고구려전이 신빙성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편찬되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국문헌들에 기록된 고구려관계사료의 래원은 크게 세가지 통로로 나누어볼수 있다. 즉 첫째는 전쟁이고 둘째는 사신과견, 셋째는 변방의 보고이다. 이 세가지중에서 전쟁과 사신과견을 통하여 얻은 정보가 믿음직한것이였으며 변방의 보고는 행정지리상으로 여러가지 제한이 있었다. 특히 사신들은 거의나 타국의 정보를 내람할 임무를 받았으며 때문에 그들의 보고는 비교적 신빙성있는 것이였다. 《위서》 고구려전은 북위의 사신 리오가 고구려에 사신으로 갔다와서 제출한 보고에 기초하여 편찬되였다. 이와 반면에 《북사》와 《마씨문헌통고》, 《책부원귀》는 대체로 고구려관계자료를 기록함에 있어서 선행문헌들에 의거하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위서》에 반영된 고구려관계자료가 더욱 신빙성있다고 할수 있다.

근거는 둘째로, 《위서》의 기록이 《삼국사기》의 기록과 일치되기때문이다. 《삼국사기》에는 류리(유류)가 부여에서 오자 비류와 온조가 남쪽으로 떠나가고 류리(유류)가 왕이 되였다는 기록이 있다. 비록 《삼국사기》에서는 류리(유류), 《위서》에서 려달이라고 이름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지만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고 또 주몽이 왕이 된 후 아버지를 찾아왔다는 공통된 기록으로 보아 한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이름인 것이 명백하다. 《삼국사기》는 시기적으로 우의 중국고전들보다 늦지만 편찬당시 고구려시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고기》와 구《삼국사》를 비롯한 많은 국내문헌들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사료적가치에 있어서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뒤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고구려왕세계에 대한 기록의 경우에도 중국고전들에는 많은 오기들이 있지만 《삼국사기》의 기록들은 대체적으로 정확하다. 따라서 《삼국사기》와 일치하게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찾아와 왕이 되였다고 한 《위서》의 기록이 옳다고 볼수 있다.

근거는 셋째로, 《북사》와 《마씨문헌통고》, 《책부원귀》의 기록이 논리적으로 밀착되지 않기때문이다. 우의 문헌들에서는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려달이 찾아오자 그에게 국사를 말기였다고 하면서도 그가 태자에서 폐위되였다는가 하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주몽이 죽은 다음에는 여류가 왕이 되였다고 기록하고있다. 《삼국사기》에도 기록되어있는바와 같이 주몽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부여에 있던 아들이 찾아와 태자가 되자 두 아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즉 주몽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수 있는 아들은 려달이며 여류가 될수 없다. 여류가 주몽의 손자라고 해도 주몽은 22살에 왕이 되고 40살에 죽었으므로 손자에게 직접 왕위를 물려줄수는 없는것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따져보아도 《위서》의 기록이 옳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위서》의 기록대로 고구려건국초기의 왕세계를 동명왕－유류왕－여류왕－대주류왕으로 고증한 우리학계의 견해는 과학적인것이다.

2. 2. 5－10대왕세계의 루락에 대한 분석

중국고전들에서는 일치하게 5대 애루왕, 6대 중해왕, 7대 류리명왕, 8대 대무신왕, 9대 민중왕, 10대 모본왕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고있다. 이것은 중국봉건사가들이 고의적으로 루락시킨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애루왕의 루락을 통해서 잘 알수 있다. 한나라봉건

통치배들은 고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을 벌리면서 고구려땅에 현도군을 두려고 획책하였으나 고구려의 강한 반격에 부딪쳐 실현할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마치도 저들이 고구려의 전지역을 차지한것처럼 선전하기 위해 현도군의 소재지현 명칭을 고구려의 이름을 따서 고구려현이라고 붙여놓고 역사적사실을 외곡하였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애루왕이 무락되었다고 볼수 있다.

B.C.108년이전에 고구려는 1대 동명왕, 2대 유류왕, 3대 여류왕, 4대 대주류왕, 5대 애루왕을 거쳐 존재하고있었으나 중국고전들에서는 대주류왕(막래)까지는 기록하면서 애루왕은 빼놓았다. 그것은 애루왕의 재위기간이 B.C.138-B.C.93년으로서 현도군설치이후에도 계속 존재한 왕이기때문에 그를 인정하면 고구려를 한개 속현으로 만들었다고 한 저들의 력사의외곡을 가리울수 없었기때문이었다고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애루왕때부터 무락되기 시작한 고구려왕세계는 6대 중해왕, 7대 류리명왕, 8대 대무신왕, 9대 민중왕, 10대 모본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후 11대 태조대왕때에 이르러 고구려가 더욱 강성해지고 군사적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료서지방에까지 진출하여 10개의 성을 쌓게 되자 더는 고구려에 대해 저들의 속현으로 외곡할수 없게 되었고 이때부터 고구려왕세계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보아진다. 그러면서 4대 대주류왕과 11대 태조대왕사이의 공백을 막래의 후손 궁*이라고 막연하게 처리해놓았다.

* 《위서》 권100 렬전88 고구려, 《북사》 권94 렬전82 고려, 《책부원귀》 권966 외신부 계습

2. 3. 11, 12, 13대왕세계의 오기에 대한 분석

11대 왕인 태조대왕 궁과 12대 왕인 차대왕 수성, 13대 왕인 신대왕 백고에 대한 중국고전들의 기록은 각이하다. 《후한서》와 《태평환우기》, 《마씨문헌통고》, 《통전》에서는 이 세왕들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수성은 궁의 아들로, 백고는 수성의 아들로 기록해놓았다. 한편 《삼국지》, 《량서》, 《북사》에서는 수성을 빼버리고 백고가 궁의 아들이라고 기록하였다. 《삼국사기》에서는 이 세사람사이를 형제관계로 보았다. 또한 이들의 즉위년대와 사망년대에 대한 기록도 서로 차이난다.

그러면 이 서로 다른 기록들가운데서 어느것이 진실이고 어느것이 외곡된것이겠는가.

여기서 명백한것은 수성을 빼버린 《삼국지》, 《량서》, 《북사》의 기록이 틀린다는것이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와 《후한서》, 《태평환우기》, 《마씨문헌통고》, 《통전》 등 문헌들에 수성과 관련된 력사적사실들이 명확히 기록되어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무시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왕세계의 순차에 관해서는 궁-수성-백고로 인정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먼저 즉위년대와 사망년대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태조대왕, 차대왕, 신대왕의 즉위년대와 사망년대

책이름 왕이름	《후한서》		《삼국지》		《삼국사기》	
태조대왕 (궁)	즉위		즉위		즉위	53년
	사망	121년	사망	126-167년(순제-환제시기) 이전	사망	165년
차대왕 (수성)	즉위		즉위		즉위	146년
	사망	132년이전	사망		사망	165년
신대왕 (백고)	즉위		즉위		즉위	165년
	사망		사망		사망	179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세사람의 즉위년대와 사망년대에 대한 문헌기록들간의 차이는 매우 심하다. 여기서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에는 그들의 행적이 년도별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기때문이다. 또한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이 이미 《후한서》의 기록과 《해동고기》의 기록을 대비하면서 《후한서》의 기록이 틀린것 같다*고 인정한 조건에서 《삼국사기》의 기사가 정확하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94년

다음으로 세사람사이의 관계문제를 보기로 하자.

우에서 본바와 같이 중국고전들에서는 세사람사이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보았고 《삼국사기》에서는 형제관계로 보았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선 궁과 수성사이의 관계는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형제관계로 인정된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관나우태 미유와 환나우태 어지류, 비류나조의 양신 등이 수성에게 왕위에 오를것을 권고하자 수성은 《맡아들이 반드시 왕위를 계승함은 천하의 뿔뿔한 도리이다. 왕이 지금 비록 늙었으나 맡아들이 있는데 어찌 감히 분에 넘치는 일을 바랄수 있느냐?(承襲必嫡天下之常道也. 王今雖老 有嫡子在 豈敢顛親乎.))^{*1}라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왕위에 올랐으며 궁의 맡아들 막근을 죽이고 그의 동생 막덕이 자살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김부식은 《이제 태조왕이 의리를 알지 못하고 중대한 왕위를 가볍게 생각하여 어질지 못한 동생에게 맡김으로써 화가 한 충신과 두 사랑하는 아들에게 미치게 하였으니 어찌 탄식을 금할수 있으랴?(今太祖王不知義 輕大位以授不仁之弟 禍及一忠臣 二愛子 可勝歎耶.))^{*2}라고 평하였다.

*¹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80년

*²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차대왕 3년

《삼국사기》에는 수성이 궁의 동생으로서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는것만큼 그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그들사이를 형제관계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수성과 백고사이의 관계는 큰아버지와 조카사이의 관계로 인정된다. 중국고전들에서는 수성과 백고를 부자관계로 보았는데 이것은 틀린것이다. 백고는 명림답부가 폭군인 수성을 살해하고 올려앉힌 왕이었으며 그는 왕위에 올라앉은 후 해를 입을것이 두려워 도망쳤다가 대사령소식을 듣고 찾아온 수성의 태자 추안에게 구산뢰, 루두곡 두 지역을 하사하고 양국군으로 봉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백고가 수성의 아들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준다.

한편 《삼국사기》에서는 백고가 태조대왕 궁의 막내동생이라고 하였는데 이것 역시 맞지 않는다. 《삼국사기》에 기록된바와 같이 궁과 수성은 모두 류리왕의 아들인 고추가 재사의 아들들이다. 모본왕이 죽었을 때 여러 신하들이 재사를 왕으로 내세우려고 하였으나 재사는 자기가 늙었다고 하여 아들인 궁에게 양보하였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궁은 53년에 7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백고는 165년에 77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따라서 궁은 47년에 태어났고 백고는 89년에 태어났으며 두 사람사이의 나이차이는 42살이다. 53년에 나이가 많아 왕위에 오르지 못한 재사가 그로부터 36년후에 살아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들 백고를 낳는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만약 백고를 궁의 친동생이 아니라 4촌동생 즉 재사의 동생이 낳은 아들이라고 가설을 세운다 해도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류리왕은 18년에 죽었는데 그해에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백고가

태어난 89년에는 벌써 그의 나이가 72살이 되므로 백고를 낳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백고는 류리왕의 손자나 궁의 동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백고는 수성의 아들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다.

그러면 백고는 궁, 수성과 어떤 관계에 있겠는가.

론리적으로 따져볼 때 백고가 가질 수 있는 신분은 궁의 아들이라든가 수성을 제외한 궁의 동생들가운데서 누군가의 아들일수밖에 없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 어지류가 뿔어앉아 백고에게 나라의 옥새를 바치면서 《선왕(태조대왕 궁-필자주)이 불행히도 세상을 떠나고 비록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를 맡을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인자하신 당신에게 돌아가므로 삼가 아뢰오니 청컨대 존귀한 왕위에 오르소서.(先君不幸棄國雖有子 不克有國家 夫人之心歸于至仁 謹拜稽首 請卽尊位.)》*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백고가 궁의 아들은 아니다.

* 《삼국사기》 권16 고구려본기4 신대왕 원년

따라서 백고는 궁의 동생들가운데서 누군가의 아들로 되어야 한다. 여기서 관건으로 되는것은 수성이 여러날동안 사냥으로 절도없는 생활을 하자 그의 동생인 백고가 《...지금 당신은 임금의 동생이라는 근친으로서 백관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지위는 이미 극히 높고 공로도 또한 뛰어나다. 마땅히 충성과 의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례의와 양보로써 욕심을 억제하여 우로는 왕의 덕을 같이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今子以王弟之親 爲百寮之首 位已極矣 功亦盛矣. 宜以忠義存心 禮讓克己 上同王德 下得民心.)》*라고 충고한 사실이다.

*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86년

앞에서 본바와 같이 백고는 수성의 동생이 아니지만 이 기록을 통하여 그에게 백고가 아닌 어떤 동생이 있었다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그 동생이 곧 백고의 아버지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된다. 이렇게 놓고볼 때 수성과 백고사이의 관계는 큰아버지와 조카사이의 관계로 보아야 할것이다.

2. 4. 14, 15대왕세계의 오기에 대한 분석

《삼국지》와 《량서》, 《북사》, 《태평환우기》, 《통전》, 《마씨문헌통고》, 《책부원귀》를 비롯한 모든 중국고전들에는 백고(13대 신대왕)가 죽은 다음 이이모(15대 산상왕)가 즉위한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실례로 《삼국지》에는 《백고가 죽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발기이고 둘째아들은 이이모였다. 발기가 변변치 못하여 나라 사람들이 이이모를 왕으로 내세웠다. ...건안중기에 공손강이 군사를 동원하여 그 나라를 치고 고을들을 불살랐다. 발기는 형으로서 왕이 되지 못한 한을 품고 연노가와 함께 각각 하호 3만여명을 데리고 공손강에게 가서 항복하고 비류수에 돌아와 살았다.(伯固死 有二子 長子拔奇 小子伊夷摸. 拔奇不肖 國人使共立伊夷摸爲王. ...建安中 公孫康出軍擊之 破其國 焚燒邑落.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 詣康降 還住沸流水.)》*라고 기록되어 있다.

* 《삼국지》 권30 위지, 권30 고구려

이것은 모든 중국고전들에 관통되어있는 내용이다.

한편 이와 관련된 《삼국사기》의 기록은 서로 엇갈려있다.

《삼국사기》 권16 고구려본기4 고국천왕 원년조의 기록 :

《고국천왕(혹은 국양왕)의 이름은 남무(혹은 이이모)이고 신대왕 백고의 둘째아들이다. 백고가 죽자 나라 사람들이 만아들 발기가 어질지 못하다고 하여 이이모를 추대하여 왕으로 삼았다. 한나라 헌제 건안초기에 발기가 형으로서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을 원망하여 소노가와 함께 각각 하호 3만여명을 거느리고 공손강에게로 가서 투항하고 비류수가 돌아와서 살았다.(故國川王 或云 國襄. 諱男武 或云 伊夷謨. 新大王伯固之第二子. 伯固薨 國人以長子拔奇不肖 共立伊夷謨爲王. 漢獻帝建安初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消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 詣公孫康降 還住沸流水上.)》

《삼국사기》 권16 고구려본기4 산상왕 원년조의 기록 :

《산상왕의 이름은 연우이니 일명 위궁이라고도 하는데 고국천왕의 동생이다. …고국천왕이 아들이 없으므로 연우가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처음 고국천왕이 죽었을 때 왕후 우씨가 왕이 죽은 사실을 비밀에 붙여 알리지 않고 밤에 왕의 동생 발기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왕이 아들이 없으니 그대가 왕의 뒤를 이어야 하겠다.〉고 하니 발기는 왕이 죽은것을 알지 못하고 대답하기를 〈하늘이 정해준 운수는 돌아가는바가 있으니 경솔하게 논의할수 없다. 더군다나 부인으로서 밤출입을 하는것이 어찌례절이라 하리오.〉라고 하였다. 왕후가 창피하여 그길로 연우의 집에 갔다. …연우를 내세워 왕을 삼게 하였다. 발기가 이 사실을 듣고 크게 분개하여 군사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였다. …발기가 성공하기 어려움을 알고 처자들을 데리고 룡동으로 달아나서 태수 공손도에게 말하기를 〈…나의 동생 연우가 형수 우씨와 공모하여 왕위에 올라 천륜의 대의를 어지럽혔으므로 이에 분개하여 귀국으로 귀순하여왔으니 원컨대 군사 3만을 빌려주어 치게 하면 란을 평정하겠다.〉라고 하니 공손도가 그 말을 좇았다. 연우가 동생 계수를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를 막게 하니 한나라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山上王 諱延優 一名位宮 故國川王之弟也. …故國川王無子 故延優嗣立. 初 故國川王之薨也 王后于氏秘不發喪 夜往王弟發歧宅曰《王無後 子宜嗣之.》發歧不知王薨 對曰《天之曆數有所歸 不可輕議. 況婦人而夜行 豈禮云乎.》后慙 便往延優之宅. …立延優爲王. 發歧聞之大怒 以兵圍王宮…發歧知難 以妻子奔遼東 見太守公孫度 告曰《…某之弟延優與嫂于氏謀即位 以廢天倫之義. 是用憤恚 來投上國 伏願假兵三萬 令擊之 得以平亂.》公孫度從之. 延優遣弟闕須 將兵禦之 漢兵大敗.)》

보는바와 같이 두 기사에서 14대 고국천왕 남무(이이모)와 15대 산상왕 연우(위궁)라는 주인공이 다를뿐 모두 형 발기를 누르고 왕위에 올랐다는 내용은 공통적이다. 그리고 산상왕 원년조에는 계수가 산상왕의 동생으로 되어있는데 한편 고국천왕 6년조에는 한나라 룡동태수가 군사를 일으켜 침범해오니 고국천왕이 왕자 계수를 보내어 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산상왕이 고국천왕의 동생인 조건에서 고국천왕에게는 아들이 되고 산상왕에게는 동생으로 되는 계수란 있을수 없으므로 이것도 엇갈린 기록이다.

그러면 이러한 엇갈린 견해들가운데서 어느것이 진실이고 어느것이 외곡된것이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이미 《조선단대사》에서 고국천왕 원년조의 기사보다 산상왕 원년조의 기사가 매우 진실감이 있고 자세하며 따라서 이것이 실지있는 사건을 옳게 쓴것이라고 밝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언급하게 되는것은 이 문제를 당시의 구체적인 역사적사건사실들과 문헌사료들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학계견해의 과학성을 사료적

으로 증명하자는데 있다.

먼저 중국고전들의 기록을 분석해보기로 하자.

기록을 보면 이이모가 즉위하자 발기가 형으로서 왕위에 오르지 못한것을 원망하여 동한 헌제 건안중기에 공손강에게 투항해간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건안년간은 196—220년이며 공손강이 룡동태수를 지낸 기간은 204—220년까지이다. 백고가 179년에 죽고 이해에 이이모가 왕위에 올랐다고 볼 때 이 기사에서 이이모의 즉위(179년)와 발기의 투항(204—220년)사이의 시간적차이는 너무 심하다. 이것은 백고와 이이모사이에 한 개 왕대가 무락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며 중국고전들의 기록이 잘못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삼국사기》 고국천왕 원년조와 산상왕 원년조에 기록된 남무와 발기(拔奇), 연우와 발기(發岐)사이의 왕위쟁탈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우선 발기(拔奇)와 발기(發岐)가 도대체 서로 다른 두명의 인물이겠는가 아니면 같은 한 인물이겠는가 하는것이 밝혀져야 한다. 명백히 발기(拔奇)와 발기(發岐)가 서로 다른 두명의 인물이 아니라 같은 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 비록 발기(拔奇)와 발기(發岐)에서 리용된 한자는 서로 다르지만 그의 조선어발음인 《발기》는 완전히 같기때문이다. 이것은 발기(拔奇)와 발기(發岐)가 같은 인물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며 그들이 서로 다른 인물이 아니라 같은 한사람이라고 확정하는데서 출발점으로 된다.

둘째로, 발기(拔奇)와 발기(發岐)가 왕위쟁탈을 벌린 년대가 서로 같기때문이다. 《삼국사기》 고국천왕 원년조와 《삼국지》 고구려전의 기록에 의하면 발기(拔奇)는 동한 헌제 건안초 또는 건안중기에 이이모가 왕위를 계승한데 대해 원한을 품고 룡동 공손강에게 의거해갔고 그후 공손강의 힘을 빌려 이이모와 왕위쟁탈전을 벌리었다. 또한 《삼국사기》 산상왕 원년조의 기록에 의하면 발기(發岐)는 고구려 산상왕 즉위 원년에 자기의 동생 연우가 왕위를 계승한데 대해 대노하여 공손도의 힘을 빌려 연우를 반대하는 싸움을 벌리었다. 동한 헌제 건안년간은 196—220년에 해당하며 공손도는 189—204년기간에 룡동태수를 지냈고 그의 아들 공손강은 204—220년까지의 기간에 룡동태수를 지내었다. 고구려 산상왕의 즉위년대는 197년이다. 이로부터 발기(拔奇)가 이이모의 왕위계승을 반대하여 벌린 싸움은 건안년간과 공손강의 집권기간이 겹치는 시기인 204—220년사이에 일어났고 발기(發岐)가 연우의 왕위계승에 대노하여 벌린 싸움은 197년(산상왕 원년)에 일어났다는것을 알수 있다. 즉 발기(拔奇)와 이이모의 왕위쟁탈과 발기(發岐)와 연우의 왕위쟁탈은 모두 산상왕의 재위기간(197—227년)에 일어난것으로 되며 이것은 발기(拔奇)와 발기(發岐)가 서로 다른 두명의 인물이 아니라 같은 한사람이며 고국천왕조의 기사가 잘못된것이라는것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로 된다.

셋째로, 발기(拔奇)와 발기(發岐)가 모두 룡동 공손씨에게 의거하였기때문이다.

발기(拔奇)가 의거한것은 공손강이고 발기(發岐)가 의거한것은 공손도이다. 이것은 그들이 의거해간 년대를 기록하면서 생겨난 오차(건안초와 건안중기)에 의하여 초래된 결과이다. 또한 문헌기록에 의하면 발기(拔奇)는 소노가와 함께 각각 하호 3만여명을 거느리고 공손씨에게 의거해갔고 발기(發岐)는 처자를 데리고 룡동으로 의거해갔다. 비록 두대상은 기록각도에서 서로 다를뿐아니라 내용상에서도 차이나지만 발기(發岐)와 관련한 기록에 역시 《군사 3만》을 빌려달라고 한 문구가 있다. 즉 두 기록에 모두 공통적으로 《3만》이라는 수자가 나오는데 이것 역시 무시할수 없는것이다. 더우기 주목을 끄는것은 발기

(拔奇)와 발기(發岐)가 모두 룡동 공손씨에게 의거해갔고 그들의 힘을 빌려 고구려로 돌아와 산상왕 이이모와 왕권쟁탈을 벌렸을뿐아니라 나중에는 모두 실패로 끝난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비록 일부 구체적인 문제상에서 발기(拔奇)와 발기(發岐)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결코 서로 다른 두 인물이 아니라 한 인물이며 발기의 왕위쟁탈을 위한 싸움은 산상왕대에 일어났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모든 역사기록들에서 발기의 싸움 대상이 이이모로 되어있는것만큼 그 기록들을 모두 잘못된것이라고 부정할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이모는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고국천왕 남무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산상왕 연우의 다른 이름으로 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신대왕 백고가 죽은 다음 이이모가 왕이 되었다는 중국고전들의 기록과 이이모가 고국천왕 남무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면서 고국천왕조기사에 그와 발기의 왕위쟁탈전을 기록한 《삼국사기》의 기록들은 틀린것이다.

잘못된 왕세계를 옳게 수정해본다면 신대왕 백고가 죽은 다음 고국천왕 남무가 왕이 되고 그가 죽은 다음에는 산상왕 연우(또는 이이모)가 왕이 되었다.

2. 5. 26, 27, 28대왕세계의 오기에 대한 분석

26대왕인 문자명왕의 이름을 중국고전들에서는 운이라고 하였고 《삼국사기》에서는 라운이라고 하였다. 《남사》와 《량서》, 《마씨문헌통고》에서는 운을 련(장수왕)의 아들로 기록하였고 《위서》와 《북사》에는 련의 손자라고 하였다. 《삼국사기》에서도 《위서》와 《북사》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라운이 련의 손자라고 하였다.

그러면 어느 기록이 옳겠는가.

《삼국사기》에 장수왕의 아들 고추대가 조다가 일찍 죽으니 장수왕이 그의 아들 라운을 궁중에서 길러 장손으로 삼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는것으로 보아 《삼국사기》와 《위서》, 《북사》의 기록이 옳다고 본다.

또한 고구려 27대왕인 안장왕과 28대왕인 안원왕에 대해 《량서》와 《위서》, 《남사》, 《북사》, 《마씨문헌통고》 등 중국고전들에는 《안이 죽자 아들 연이 재위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두사람사이를 부자관계로 보았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는 두사람사이를 형제관계라고 하면서 《안원왕은 이름이 보연이다. 안장왕의 동생이다.》라고 기록하고있다. 또한 안장왕과 안원왕의 사망년대에 대해 《위서》와 《북사》에는 자세하지 않고 《량서》와 《남사》에서는 안장왕은 량무제 보통 7년(526년)에 죽었고 안원왕은 량무제 태청 2년(548년)에 죽은것으로 기록하고있다. 이에 대해 《삼국사기》에서는 안장왕은 531년에 죽었고 안원왕은 545년에 죽은것으로 기록하고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이 옳다고 본다. 그것은 김부식이 이미 《삼국사기》에서 안장왕이 531년(재위 13년)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그것을 주석하여 《이때는 량나라 중대통 3년이고 위나라 보태 원년이였다. <량서>에서 <안장왕이 왕위에 있는지 8년만인 보통 7년(526년)에 죽었다.>고 한것은 잘못된것이다. (是梁中大通三年 魏普泰元年也. 梁書云《安臧王在位第八年 普通七年卒.》誤也.)》*1라고 하였고 또 안원왕이 545년(재위 15년)에 죽었다고 하고는 그것을 주석하여 《이때는 량나라 대통 11년이요 동위 무정 3년이다. <량서>에는 <안원왕이 대청 2년(543년)에 죽으므로 그의 아들이로서 녕동장군, 고구려왕, 락랑공을 삼았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잘못된것이다. (是梁大同十一年 東魏武定三年也. 梁書云《安原以大清二年卒 以其子爲寧東將軍高句麗王樂浪公.》誤也.)》*2라고 분석평가하였으므로 그것을

무시할수 없기때문이다.

*¹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 7 안장왕 13년

*²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 7 안원왕 15년

즉 26대 문자명왕은 25대 장수왕의 손자이며 28대 안원왕은 27대 안장왕의 동생이다. 그리고 안장왕은 531년에 죽었으며 안원왕은 545년에 죽었다.

3. 결 론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수 있다.

첫째로, 고구려의 1-4대왕세계에 대해 기록한 《위서》, 《북사》, 《마씨문헌통고》, 《책부원귀》 등 중국고전들가운데서 《위서》의 기록이 옳은것이며 나머지기록들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로, 《위서》, 《북사》, 《책부원귀》를 비롯한 중국고전들에는 5-10대에 이르는 고구려왕세계가 루락되었다.

셋째로, 11대 태조대왕과 12대 차대왕, 13대 신대왕의 즉위년대와 사망년대 및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후한서》, 《삼국지》, 《량서》, 《북사》, 《태평환우기》, 《마씨문헌통고》, 《통전》 등 중국고전들의 기록은 모두 잘못되었다. 11대 태조대왕은 53년에 즉위하였다가 165년에 죽었고 12대 차대왕은 146년에 즉위하였다가 165년에 죽었으며 13대 신대왕은 165년에 즉위하였다가 179년에 죽었다. 그리고 차대왕은 태조대왕의 동생이고 신대왕은 태조대왕과 차대왕의 조카이다.

넷째로, 《삼국지》, 《량서》, 《북사》, 《태평환우기》, 《통전》, 《마씨문헌통고》, 《책부원귀》를 비롯한 중국고전들에서는 모두 14대 고국천왕을 루락시켰다.

다섯째로, 26대 문자명왕을 25대 장수왕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남사》, 《량서》, 《마씨문헌통고》의 기록은 잘못된것이며 손자라고 기록한 《삼국사기》, 《위서》, 《북사》의 기록이 옳은것이다. 그리고 《량서》, 《위서》, 《남사》, 《북사》, 《마씨문헌통고》 등 중국고전들에서는 27대 안장왕의 동생인 28대 안원왕을 그의 아들이라고 잘못 기록하였으며 안장왕과 안원왕의 사망년대도 《량서》와 《남사》에서는 틀리게 기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중국고전들에는 33대에 이르는 고구려왕세계가운데서 여섯대왕세계가 루락되고 여덟대왕세계가 잘못 기록되어있다.

이것은 전체 왕대수의 42.5%에 해당한것으로서 역사연구에서 사료의 진위를 고증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옛 문헌기록들은 역사연구에서 의거해야 할 기본수단으로 되지만 거기에는 많은 사료들이 외곡되어있기때문에 아무런 분석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앞으로 역사사료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미해명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더욱 풍부히 고증하고 발전시켜나아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왕세계, 발기, 이이모